

김 병 덕 (창원대학교)

우리나라 命數法에 대한 小考(N)

우리나라(조선시대~일제강점기)의 尺度(특히 자[尺]와 里)에 대하여, 수학교육적 측면에서 오류의 실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經國大典》 및 《大典會通》 6卷(工典) '度量術'에 있는

"以周尺准黃鐘尺 則周凡長六寸六釐 以營造尺准黃鐘尺 則長八寸九分九釐  
以造禮器尺准黃鐘尺 則長八寸二分三釐 以布帛尺准黃鐘尺 則長一尺三寸四分八釐"  
의 내용은 다음 A, B 중 어느 것인가?

- A. 주척 1자 = 황종척의 6치 6리,                      영조척 1자 = 황종척의 8치 9푼 9리  
조례기척 1자 = 황종척의 8치 2푼 3리,            포백척 1자 = 황종척의 1자 3치 4푼 8리
- B. 황조척 1자 = 주척의 6치 6리,                      황조척 1자 = 영조척의 8치 9푼 9리  
황조척 1자 = 조례기척의 8치 2푼 3리,            황조척 1자 = 포백척의 1자 3치 4푼 8리

2. 우리나라의 1리(一里)는 약 500 m정도(420 m이상~600 m미만)이나?  
또는 3.927 km 이나?

김 성 숙 (배재대학교)

Kunihiko Kodaira 의 생애와 수학

고다이라는 1915년 3월 16일에 태어나 1997년 7월 26일 이 세상을 떠났다. 1954년에 수학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필즈(fields) 상을 받은 고다이라의 수학적 업적은 매우 광대하여 수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 그 자신만의 결과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D. Spencer, F. Hirzebruch, A. Weil과 A. Borel과의 공동연구의 결과였다. 물론 고다이라 자신도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Spencer, Hirzebruch를 비롯한 많은 수학자들과의 토론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 발표에서는 고다이라의 생애와 그가 현대 수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